

## KIA 타이거즈 잠실 찬가...V11 금자탑



30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펼쳐진 2017 타이거뱅크 KBO리그 한국시리즈 5차전 경기에서 KIA 타이거즈가 한국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두산 베어스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한 뒤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모여 환호하고 있다. /잠실=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범호 만루홈런...두산에 7대 6 승  
1패후 4승...KS 11 연속우승 신화  
완봉승·슈퍼세이브 양현종 MVP**

가장 간절했지만, 가장 부진했던 이의 '눈물의 한방'이었다.

KIA 타이거즈가 3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2017 KBO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이범호의 만루포와 양현종의 슈퍼 세이브로 7-6승리를 거두며 시리즈 전적 4승1패로 '타이거즈 불패 신화'를 이었다. 2009년 이후 8년 만에 달성한 'V11'이다.

0-0으로 맞선 3회 이명기의 내야 안타가 승리의 신호탄이었다. KIA는 김주찬의 희생 번트에 이어 버나디나와 최형우의 연속 안타로 만루를 채웠다. 안치홍의 헛스윙 삼진 후 2사 만루에서 베테랑 이범호가 타석에 섰다.

지난해와 다른 긴 슬럼프의 시즌을 보낸 그의 이번 시리즈 타율은 0.083. 그러나 간절했던 이범호의 '만루 본능'이 결정적인

순간 발휘했다. KBO리그 만루홈런 최다 기록(16개) 보유자인 이범호가 이번 시리즈에서 맞은 첫 만루 상황을 놓치지 않았다.

'가을 사나이' 니퍼트의 초구 슬라이더를 공략한 이범호가 삼진 후 두 손을 번쩍 든 채 그라운드를 돌았다.

지난 시즌까지 3년 연속 KIA의 주장을 맡아 팀을 이끌었던 이범호는 임버릇처럼 '우승'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어렵게 얻은 우승 도전 기회에서 이범호는 가시방석에 앉았다.

이범호는 1차전 4타석에서 삼진 두 개만 기록했다. 26일에도 볼넷 하나에 그쳤던 그는 28일 3차전 첫 타석에서는 병살타를 기록했다. 29일에도 연속해서 삼진으로 돌아서는 등 14번째 타석에서야 겨우 안타를 신고했다.

29일 바깥쪽 멀게 떨어진 공에 삼진을

당한 뒤에는 평소 이범호답지 않게 방망이를 던지기도 했다.

그리고 우승까지 1승만 남아있던 이날, 이범호는 자신의 인생에 가장 잊을 수 없을 홈런을 날리며 우승 시상대에 섰다.

2차전 완봉승의 주인공인 양현종이 'V11'의 대미를 장식했다. 선발 핵터가 6이닝 5실점으로 부진하면서 7-6으로 쏙힌 상황에서 9회 말이 시작됐다.

마지막 이닝을 위해 마운드에 오른 이는 임창용이 아닌 양현종이었다. 양현종은 첫 타자 김재환을 볼넷으로 내보냈지만 '플레이오프 MVP' 오재일을 좌익수 플라이로 처리했다. 그리고 조수행의 번트 때

대수비로 들어갔던 3루수 김주형의 송구 실책이 나오면서 1사 2·3루, 허경민을 고의 사구로 내보내며 만루를 채운 양현종은 박세혁을 유격수 플라이로 김재호를 포수 플라이로 우승에 남은 아웃카운트 두 개를 채웠다.

정규시즌에 이어 '가을 잔치'에서도 대활약을 펼친 양현종이 2017 한국시리즈 MVP에 등극했다.

/잠실=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지방 재정분권, 지방세 배분기준 개선 급선무

**"지방소득세 증가분 공동세 도입 필요"...전남도, 정부에 촉구**

전남도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소득세 배분기준을 개선하고, 지방소득세 증가분에 대한 공동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가 최근 지방자치 분권 추진을 위한 로드맵 초안에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최대 6대4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단순 지방세 비중 확대로는 기존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도 등 일부 지자체로서는 큰 수혜를 볼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제인 정부는 국정과제인 강력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7.6 대 2.4'에서 '7 대 3'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6 대 4' 수준까지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격차 완화와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복지비용 지출 증가 등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와 지방의 지출 비중은 '4 대 6'인 반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7.6 대 2.4'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다. 또 경직성 경비인 국고보조사업의 지속적 증가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 격차가 크고, 지방세 확대만으로는 재정 확충시 세원 불균형으로 인해 재정 격차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같은 사정에 따라 전남도는 지방소득세 배분 기준 개선과 지방소득세 증가분의 공동세 도입,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감액을 불러오게 된다"며 "사정이 유사한 전북·경북·강원·충남·충북 등과 연대해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시 비수도권에 유리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피부의 균형을 바로잡아  
찬란하게 빛나는 궁극의 윤기를 얻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속부터 우러나오는 건강한 피부 윤기. 치유침 없는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생기, 탄력, 투명, 자생력, 영양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삼천 가지 귀한 원료에서 찾은 다섯 가지 성분의 자음단™이 피부 본연의 윤기를 찾아주고  
피부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 가장 이상적인 피부균형을 완성합니다  
매일 아침, 찬란하게 빛나는 윤기피부를 만나보세요

# Sulwhasoo

• 설화수 플레그스킨스토퍼 및 전국 백화점, 아모레 키오스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레그스킨스토퍼: 02-541-9270 •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